

2009년
10월15일
창간호



社友會報

서로 도우며
즐겁고
건강하게

• 발행처 사단법인 MBC사우회 100-702 서울시 중구 정동 22 TEL 02-722-7416 E-mail mbcsau@mbcsau.com • 발행인 강영구 • 편집인 이연현 • 편집장 한박무



창간사

여러분의 이야기 광장 마련했습니다

사우회 창립 19주년, 소식지 발행 1년 6개월 만에 사우회보 창간호를 발행 합니다. 1,200여 사우회 회원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눕니다.

사우회는 2004년 7월에 홈페이지를 개설한데 이어 올 6월에는 카페(다음)도 개설해 사우회와 회원들, 회원들과 회원들 사이의 정보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페가 갖는 특성과 회보가 갖는 특성, 카페가 주는 즐거움과 회보가 주는 즐거움은 분명 다를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이 다양하고 다채롭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우회는 창립 기념일인 5월 18일을 전후해서 매년 봄철 단합대회를 갖고 있으며 12월에는 송년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회원들은 무슨 할 얘기들이 그리 많은지 만났다면 시간 가는줄을 모르고 또 헤어지는 순간을 아쉬워 합니다.

좀 늦은감이 있기는 하지만 시작이 반 이라는 말 처럼 오늘 창간된 사우회보는 할 말이 많은 회원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릴 것입니다.

현역시절에 있었던 에피소드나 꼭 들려주고 싶은 추억, 남기고 싶은 이야기, 여행후기, 권하고 싶은 책, 건강상식, 한번쯤 글을 쓰고나서 발표할 자리가 마땅치 않아 보관하고 있던 원고들, 도심에서만 살다가 조용한 시골이나 산골에 전원주택을 마련하고 낙향한 삶의 뒷 얘기 등 무엇이든 사우회보는 기다릴 것입니다.

사우회보 창간을 계기로 방송인으로서의 보람된 삶과, 후배 사우들에게 귀감이 될 자세가 어떤 것인지도 보여줄 수있는 광장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MBC 사우회가 더욱 더 발전하리라 기대합니다.

2009. 10. 15.
회장 강영구



축사

사우들 궁금증 확 풀어주고 후배격려 역할도 해주지요

문화방송 사우회 회보 창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엄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우회 가족여러분 모두 잘 계시는지요. 청명해진 하늘과 따사로운 햇살, 그리고 어느새 길가에 핀 코스모스를 보면서 가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요! 지난 30여 년간 취재와 방송 현장을 오가며 훌쩍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 볼 때면 지난날들이 여운을 남기는 수채화처럼 마음속에 아득아득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물론 사람들, 우리 사우들입니다.

MBC 정동시절은 힘들고 어려웠다는 기억보다는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들로 기억됩니다. 회사 분위기는 활기에 찼고 저도 젊은 시절이었으니 열정과 패기가 넘치던 시절이었습니다. 퇴근 후 사육 근처에서 선배, 동료, 후배들과 정치, 경제이야기, 단골 메뉴인 회사 걱정을 해 가며 술잔을 기울이곤 하던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요즘도 간혹 그 당시 함께했던 선배님들을 만날 때면 참으로 반갑고 예전 생각에 기분도 좋아지곤 합니다. 회사를 떠나신 선배와 후배, 그리고 동료들의 소식이 궁금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 동안 사우회의 활동과 회원들의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들려온 사우회보 창간소식은 정말 반가웠고 이를 통해 사우회 가족의 보고 싶은 얼굴과 궁금했던 소식을 접할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설렘니다. 사우회보가 소식지로서 뿐 만 아니라 MBC의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주는 격려와 응원의 메신저로서의 역할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 봅니다. 회사의 임직원과 사우회 가족들과의 의사소통의 창으로서 훈훈한 정과 따뜻한 마음이 오가는 통로가 되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요즘 들어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조심하시길 바라며 사우회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우회보를 통해서 사우회 가족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문화방송 사우회의 회보 창간을 축하하며 문화방송 사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09. 10. 15.
(주)문화방송 대표이사 사장 엄기영

회장단 및
임원진 명단

[고문] 李秀洪 任宅根 禹潤根 徐圭錫 李萬雨 盧瑞乙 金敏植 [명예회장] 朴瑾淑 [회장] 姜英求 [상임부회장] 李年憲 [부회장] 金眞豪 姜映淑 金容斌 權純福 李建植
[감사] 金圭秀 金誌純 [총무이사] 白河鉉 [이사] 朴秀明 李建世 李大雨 閔康昌 林菊姬 林周完 朴宗圭 金洙良 李鎬求 韓榮熙 丁鍾國 曹七鉉

MBC 경제살리기 캠페인
사람이
희망입니다

당신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향해 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MBC

고문
이만우

마음 아픈 이들의 가슴에서 사우회 꽃 피어났다

1990년초, 해직자 97명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를 떠난 뒤 이렇게 만나는 모양을 발전적으로 바꾸어 「MBC 사우회」 형태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다. 당시 「KBS 사우회」가 이미 창립된 상태였고, 80년도 이전 MBC는 아직 퇴직자가 많지 않았던 시절일때 80년 군부집권 과정에서 갑자기 대량 퇴직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우회 형태의 창립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 다 공감하게 되었다. 그후 퇴직자중 부문별로 호

해직사우모임이 모태, 사우회 창립위한 구체적 방안 협의 1990.5.18 퇴직사우 187명 옛 MBC 옆 음식점에서 창립총회

이던 필자의 사무실에서 창립 준비를 의논하게 되었다. 편성-제작부문에 박종민(작고), 보도부문 이만우, 기술부문 노서을, 업무부문 이태림, 관리부문 고쳐환(가나다이민), 간사 김인규씨 등 6명이 모여서 사우회 창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협의 하였다.

우선 사우회 회장 후보로 서규석·박근숙·우윤근·임택근씨 등을 대상으로 논의한 끝에 개인별 의사 타진에 들어갔다.

먼저 서규석(당시 방송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씨를 근무처로 방문하여 사우회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초대 회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방송위원회의 재직중 외부겸임은 안된다는 규정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박근숙(당시 광고공사 감사)씨를 찾아간 결과 가능하다는 답을 얻게되어 회장 내락을 받았다.

이후 계속해서 「MBC 사우회」 창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 절차를 밟아가게 된다.

추진위원으로 박근숙·노서을·박종민·이만우·이태림·이철원·김인규·변현규·이낙용·신형창·천기정씨 등 11명이 선정되어 공식 추진을 협의해 나갔다.

1990년 5월 18일 창립총회일. 187명의 퇴직사우가 중구 정동 옛 MBC 건물 옆의 음식점 총회장에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사우회 정관을 의결하고

임원을 선출 하였다. 고문으로 이수홍·임택근·우윤근·서규석·김인현 씨를 모셨고 회장 박근숙, 수석부회장 노서을, 상임부회장 이만우, 부회장 박종민·이태림·이철원·감사 이병춘·신형창, 그리고 이사진으로는 변현규·최규철·임성기·이낙용·이득렬·오정수·최인열·권순

복·천기정·강영숙·최정연·김창제 씨등 12명, 사무처 총무이사 김인규, 사무국장 김세중씨 등이 참석회원들 앞에서 큰 박수를 받으며 인사하는 것으로 대망의 「MBC 사우회」는 그 역사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회장단은 MBC 최창봉 사장을 방문해 사우회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향후 여러모로 본사의 적극적 후원과 지원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옛 MBC사옥 (현 경향신문 건물)내에 사무실을 얻게 되고, 초기 1~2년간은 연 3~4천만원의 운영자금을 제공 받았다.

그러나 본사의 회계처리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대안으로써 MBC의 보험업무를 사우회로 넘겨주는 방안이 검토되었고 다행이 그렇게 결정 되었다.

사우회 상임부회장(이만우)과 박종민 부회장이 보험 초급 대리점 점장 자격증 시험을 거쳐 법인 보험대리점인 「문화



▶ 80년 군부 정권하에서 갑자기 대량 해직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우회 형태의 창립 필요성이 절실했기에 따라 각 부문 퇴직사우들이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보험」을 사우회 내에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MBC에서 현금지원을 받는 대신 MBC 본사 및 일부 계열사의 보험업무를 이관, 대행함으로써 보험수수료 수입으로 사우회 운영자금 재원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써 사우회 회원의 회비 납부금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각종 경조사비, 동호회 활동비, 친목행사비, 사무처 운영비등 제비용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MBC 사우회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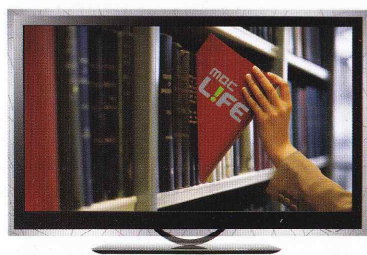
- 1990. 05/18 문화방송사우회 창립총회. 초대회장 박근숙
- 06/01 사무실 개설 (중구 정동 22 경향신문사옥 1015호)
- 1991. 01/31 문화보험판매유한회사 설립
- 03/25 (사)문화방송사우회 인가
- 04/06 보험대리점 허가 (보험감독원)
- 04/28 제1회 사우회 정기총회 개최
- 1992. 08/31 보험업무 개시
- 1994. 02/23 사우회 제2기 임원선임. 박근숙회장 연임
- 05/30 완도군 고금면 새동리에서 자매결연
- 12/29 송년회 개최 (63빌딩 코스모스홀)
- 1996. 07/27 문화보험, 쌍용화재보험과 대리점 계약 체결
- 11/27 원로회원 개월사 방문
- 1997. 02/25 사우회 제3기 임원선임. 박근숙회장 3연임
- 05/30 문화보험, 초급에서 일반대리점으로 승격
- 11/15 방송발전기여 MBC사원 방송상사상 결정
- 2000. 01/05 사우회 제4기 임원선임. 회장 우윤근
- 05/18 사우회 창립 10주년 기념행사 및 정기총회
- 07/18 정관개정 승인 (방송위원회)
- 10/09 문화보험, 총괄대리점으로 승격
- 2004. 03/25 사우회 제5기 임원선임. 회장 김민식
- 04/23 불철 낚시대회 개최
- 05/07 회원공지사항통보용 H/D 문자발송 개시
- 07/26 사우회 홈페이지 개설 및 업무전산화 개시
- 09/02 사육식 고문 방송인 명예의전당 헌정
- 10/20 가을철 등산대회 개최
- 2005. 01/03 회계업무 전산화 개시 (더존 프로그램)
- 06/22 삼반기 바둑대회 개최
- 09/27 가을철 골프대회 개최
- 2008. 02/27 사우회 제6기 임원선임. 회장 강영규
- 04/12 제1호 소식지 발행-발송
- 11/12 MBC 경영위기 상환으로 "송년행사취소" 결정
- 2009. 03/27 임택근 고문, 박근숙 명예회장 방송인 명예의전당 헌정
- 06/22 사우회 카페 개설 (<http://cafe.daum.net/mbcsau>)
- 07/13 MBC 사우회보 발행 결정. 10월15일 창간호 발간.

오늘이 있게한 초대 임원진 명단

고문 이수홍 임택근 우윤근
서규석 김인현
회장 박근숙
부회장 수석 노서을 상임 이만우
박종민 이태림 이철원
감사 이병춘 신형창
이사 변현규 최규철 임성기 이낙용
이득렬 오정수 최인열 권순복
천기정 강영숙 최정연 김창제
총무이사 김인규
사무국장 김세중

MBC MEDIA DRAMA GAME MUSIC LIFE EVERY

생활문화 다큐멘터리 채널, mbc LIFE 탄생!!



Best Life, MBC LIFE

고품격 콘텐츠 MBC LIFE 6대 장르

Lifestyle 고품격 문화와 일상 생활의 만남, 지구촌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생활 Issue&People 공주의 이슈와 화제의 인물 취재 Nature 대자연의 신비와 감동 History 과거가 아닌 오늘을 사는 지혜 Travel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곳의 사람과 이야기 Arts&Entertainment 거장의 숨결과 최신 문화의 출가점

개국 주요 프로그램

인문기행 중국
<인문기행, 중국>은 여행의
낭만과 인문학의 향기를
함께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INSIDE LIFE
트렌드에 맞춰
사회문화 전반의 이슈를
발 빠르게 취재하는
고품격 매거진

명주천리 한국의 전통주
부족 관심이 높아진 한국의 전통주가
여행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최상규의 와일드월드
대한민국 대표 자연다큐 연출자
최상규 감독이 직접 출연하여
감성포인트를
설명합니다.

정지영의 문화이야기
고품격 문화와 생활의 재발견,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이면을 심도
깊게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장터사람들
인기몰린트 임원식씨가 '장터'에
담긴 여정과 그 곳을 오가는
삶의 모습을 함께
담았습니다.

MBC LIFE 문화특강
"문화" 코드 속에 숨겨진 역사와
인문사회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 합니다.

인생동경 휴
지금,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에
있는 명사(名士)와 함께 떠나는
감성(感性)여행

문화특강
다시 우리문화를 이야기하다

MBC MEDIA는 케이블·방송통신·위성DMB·美 Direc TV에 콘텐츠를 공급하는 MBC 다채널 사업의 중심 뉴미디어 전문 기업입니다.

NAVER

MBC LIFE

창간기념 축하메세지

사우회 발전에 희망 찬 전기를



명예회장
박 근 숙

세월의 무상함을 느낄수 있는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사우회를 창립 하여 초대 회장을 시작했던것이 어느새 20년이 다 되었으니 참으로 무정한 것이 세월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소식지를 만들어 보내주어 반갑기 그지 없더니 이제 회보를 창간하여 번듯하게 얼굴을 내밀게되니 만사지탄이지만 회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창간 준비를 해준 스태프들에게 노고의 치하를 드립니다. 이 회보마당을 통해서 회원들간의 친목과 대화와 정보교환의 장이 더욱 돈독해 지기를 바랍니다.

한편으로 근간에 고향 MBC의 내외상황이 곤혹스러운 형편이라니 큰 걱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퇴직 선배로서의 지혜와 격려의 도움이 절실하리라 봅니다.

우리의 피와 땀이 베인 MBC가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하기를, 그리고 사우회원 여러분의 친목과 건강과 단합이 회보의 창간과 함께 희망찬 전기가 되어 새 출발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욱 큰일 성취할 수 있는 계기로



전 회장
우 윤 군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MBC 사우회보"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우회의 얼굴인 회보발간을 위하여 그동안 애산을 세뇌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여론을 수렴하는 등 다소간 늦었지만 이제 그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우리 MBC 본-관계 회사들에게도 이런 저런 어려움이 많겠지만, 경영학계의 세계 최고 원로인 퍼터 드러커는 우리나라 창업 세대의 열정적인 기업 정신을 높이 평가하여 대한민국이 혁신에 있어서 1등 국가라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와같은 열정적인 정신으로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복리증진과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여 더욱더 큰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 합니다.

다시 한번 "MBC 사우회보" 창간을 축하드리며 발전을 기대합니다.

MBC 프라이드의 상징으로 키워주길



전 회장
김 민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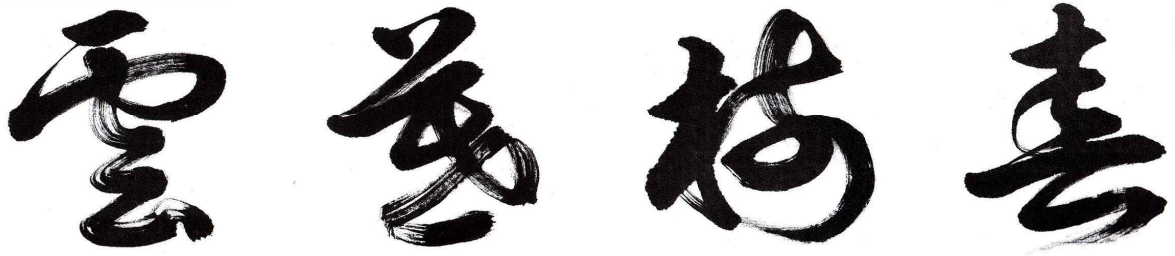
사우회 창설 20년 만에 변듯한 회보를 창간 하였으니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그동안 MBC를 떠난 퇴직 사우들의 허전한 마음의 언덕이 되어 주노라 애를 써오던 사우회는 각종 친목사업과 후배 격려 행사 등으로 겨를도 없었지만 한편으로 타사 사우회의 부러움을 사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본사의 따뜻한 지원과 성실한 사우회 운영은 후발 타사 사우회의 벤치마킹 대상이었습니다. 재직 시절에도 "MBC 프라이드"는 타의 추종을 불허 했었고 퇴직후의 모임도 남부럽지 않은 모임이 되었다고 자부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라고 외칠수 있을 만큼 MBC맨쉽은 평생 변치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자부심에 걸맞게 사우회는 계속 발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우회보는 퇴직 사우들의 자긍심의 표시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를 위해 회원들의 적극적이고 격조있는 참여 정신이 필요 할 것입니다.

좋은 글, 다양한 취미, 행복한 인생의 모습을 사우회보 광장에 활발하게 드러내어 우리가 MBC 출신임을 세상에 자랑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유희근 (前 전주 MBC사장) 사우의 회보 창간 축하취회]

春樹暮雲 친구 사이에 자주 만나고 싶어하는 깊은 우정과 그리움을 담은 4자성어다. 1,300년 전 당나라 현종 때의 천제시인 두사람 - 詩仙 두보와 詩聖 이태백은 대단히 친했다. 두보는 渭水 북쪽에, 이태백은 江東에 서로 만나 멀어져 지냈지만 두보는 늘 이태백을 생각했다. 어느 봄날 두보는 <봄의 푸르른 나무들과 황금빛 저녁노을의 아름다운 경치/春樹暮雲>을 그리면서 먼 곳에 있는 벗 이태백을 하루 빨리 만나고 싶은 생각을 읊은 시 <春日憶李白>에서 따온 글이다.

은 江東에 서로 만나 멀어져 지냈지만 두보는 늘 이태백을 생각했다. 어느 봄날 두보는 <봄의 푸르른 나무들과 황금빛 저녁노을의 아름다운 경치/春樹暮雲>을 그리면서 먼 곳에 있는 벗 이태백을 하루 빨리 만나고 싶은 생각을 읊은 시 <春日憶李白>에서 따온 글이다.

春日憶李白 봄날 이백을 생각하며

渭北春樹 渭수 북쪽의 봄 나무는 푸르고, 江東日暮雲 江동의 저녁노을은 아름다워라. 何時日暮雲 언제쯤에 같이 술잔을 나누고, 重與細論文 그와 함께 시문을 논하고 싶네.

역량 결집시키는 계기 될 것



국회의원
정 동 열

안녕하십니까 정동열입니다. MBC사우회보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회보의 창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울프는 언론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MBC가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일조할 수 있도록 헌신한 사우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MBC 사우의 일원으로서 화목하고 단합된 사우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한기 누그러뜨리는 곳, 고향소식에 기대



공주영성대학총장
김 수 랑

30여년을 몸담았던 MBC. 고향에서 멀어질수록 짙어지는 향수처럼 어느덧 고향집보다 더 정겨운 곳이 되었습니다. 길 위에 선 나그네에게 고향소식을 전해 줄 사우회보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MBC사우회 사무실은 온돌이 유난히 따뜻한, 이 아기가 있는 정겨운 사랑방입니다. 뒷목과 아랫목을 가릴 것 없이 그 방 한자리를 차지하는 것만으로 자랑스럽고, 고향의 정을 흥취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세상의 한기를 누그러뜨리는 곳, 온기가 오래 지속되어 사우 모두를 '영양이 무거운 사랑'으로 만들 동네 사랑방을 기대해 봅니다. 거듭 회보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만사지탄이나 비바! MBC사우



인사총괄팀 회장
김 정 환

이 가을 MBC 사우회보 발간 소식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대기는 만성이라 하지 않는가. 모든 사우들의 열정이 함께 함을 잊고, 막 떼어놓은 걸음 힘차게 그리고 꾸준히 전진 하기를!! VIVA MBC SAU !!

마음의 고향 MBC소식을 기대합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 웅 진

MBC 사우회보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MBC 사우회보는 MBC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가교이며, MBC 발전을 기원하고 서로의 동정과 안부를 주고 받는 소식지입니다. 비록 몸은 국회에 있지만 눈과 마음은 MBC에 남아 있습니다. 청춘을 불태웠던 마음의 고향 MBC, 그 가족이 함께 있는 곳, MBC 사우회보를 기대해 봅니다.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수원시의회위원장
홍 기 현

MBC출신 방송인의 모임인 사우회의 지속적인 연결 매개체가 될 회보가 창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MBC에서 젊음과 열정을 다 해 활동을 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퇴직을 하고 그 동안 궁금했던 사우들의 동정을 회보를 통해 보고 들을 것을 기대하니 설레임마저 생기며 감회가 새롭습니다. 사우회보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사우회원들의 건승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늘 따뜻한 친정이 되어 주십시오



전 대전 MBC사장
이 중 민

우정이 꽃피는 회보 되기를.. MBC사우회에서 '사우회보'를 발간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회보가 앞으로 MBC사우들의 사랑방이 되어 줬으면합니다. 용금을 털어 놓고 서로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마당이 되어 주십시오. 휴지통으로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MBC사우회 회보는 정성을 담아 만들어 보십시오. 회사를 떠난후 소외감 같은게 있을 사우들에게 회보는 늘 따뜻한 친정이 되어주십시오. 사우들은 모두 동등하다는 점을 명심 해 주시면 합니다. 友情이 만발한 회보가 되어주십시오. "MBC사우회 회보 파이팅!"

소통의 장, 사우회 발전에 기여



고려문화재단
김 성 규

사우회가 그동안 간지 소식지 형태로 회원 동정과 이런 저런 행사 소식을 전하다가 이제는 제대로 된 회보를 발행한다니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사우회의 위상에 비추어 때 늦은 감도 없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창간되는 사우회보가 우리 회원들 사이에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어 회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우회를 만드는데 소중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우회가 MBC발전에 거름이 되고 외풍을 막아주는 바람막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사우회의 발전과 사우회보 발간을 축하하며, 발전이 영원무궁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생각 아흔아홉이 같고 하나가 틀리지 않소



CM비크대포
박 수 부

정동, 그리움이 끝없는 거리. 낮익은 거리를 거닐 때 문득 누군가를 만날 것 같다. 돌아보면 아무도 없는 세월의 그림자를 본다. 인사동, 정동, 여의도, 서로 통하는 가슴만으로도 마냥 행복했던 시절. 오기와 무뎠음, 열정만으로도 청춘의 꿈 샘솟던 시절을 보았던 마음의 고향 MBC. 지나고 보면, 우리들의 생각이 아흔 여덟 아홉이 달고 하나가 다를 뿐이었다.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이 다 그리움이 되어 다시 만난다. 선배, 후배, 우리들의 소통의 수단 사우회보 속에 그 그리움이 그림 되어 어서 다시 만나자.

송년행사는 중단하는 일 없었으면



전 기술연구소장
고 흥 복

먼저 "사우회보창간"을 진심으로 축하 합니다. 우리 사우회가 창립된지 어느덧 20주년이 되어가는군요. 그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고 생각하며 여러 회원님들의 수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짧은지언데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사우회보창간에 맞춰 다음 두 가지만 제의해 봅니다. 첫째, 연말 하이라이트 행사인 "送年會"는 본사의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규모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행을 멈추지 않는 自充策 講究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회원수첩에 사진을 게재 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우회가 웃음꽃이 항상 만발하기를 기원 합니다.

사우가독

방송집착 직업병 고치기

고문
서규석

방송에 종사한 동안에는 프로그램의 모니터를 열심히 한 편이다. 라디오 시절에는 휴대용 라디오까지 동원하여 어떤 곳에서든지 들으려고 애썼다.

TV시절에는 3대를 한꺼번에 켜놓고 보기도 하였다. 간부사원일 때에는 지적사항을 대모하면서 시청한 경우도 많았다. 어쩌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에는 모니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을 느낄 정도로 습관화 되어 있었다.

1980년에 MBC를 물러난 후에도 대학강의, 방송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 방송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모니터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다. 지금은 아무런 의무가 없건만 몸에 밴 습관 때문에 시간만 나면 TV를 켜놓는 편이다. 어쩌다 옛 동료들과 모임에서 만나면 화제의 중심을 방송이 차지하게 되니 “쟁이들은 할 수 없다”고 웃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현장을 떠나서 보니 시청자는 우리가 모니터 하는 것처럼 열심히 시청하지 않는다.

요즘 신문을 읽을 때에도 TV를 켜놓지만 그렇게 열중해서 보지는 않는다. 좀 거리를 두고 보려고 애를 쓴다. 야외활동을 할 때에는 의도적으로 휴대용 라디오를 챙기지 않는다. 오래된 직업병을 고치기 위해서이다.

우리 집에서 길 하나를 건너면 18만평의 어린이 대공원이 펼쳐져 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면 이곳으로 산책을 나간다. 현관을 나서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푸른색이 보이면 우선 기분이 좋다. 동북쪽 하늘에 밝고 큰 별이 떠있으면 더욱 더 반가운 마음이 된다. 그 별을 쳐다보면서 잔디위에서 스트레칭 하는 일을 매일 반복 하다보면 우주의 리듬과 싱크로나이징 하는 것같은 기분이 된다.

귀뚜라미, 매미, 까치, 참새들의 교향곡도 즐겁지만 피코리 노래 소리가 섞이는 날에는 더욱 기쁜 마음이 된다. 어쩌다 다른 산책객이 라디오를 켜놓아 나칠 때에는 이마가 찌푸러지고 그 기계음이 위화감을 느낀다. 눈으로는 매일 달라지는 초목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걷다가 조용한 곳에 이르르면 잠시 휴식을 취한다. 이 때가 하루 중에서 가장 조용하고 평화로운 명상의 시간이다.

방송에 종사할 때 아이디어 개발에 관한 서적을 읽다가 몇가지 명상기법

별을 보며 명상하며 우주와 호흡, 자연찾아 산에 올라

을 배우게 되었다. 그 뒤 명상을 통해 잡념을 털어 버리고 마음의 평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습관화 해왔다. 명상의 도입부는 단전호흡으로 고요한 상태를 만든다. 수식법이라 해서 열거지를 해리하면서 심호흡을 하거나 무지개 빔빔을 연상 하면서 일곱 번 심호흡을 하는 기법들이 있다. 잡념을 털고 정신을 집중 시키기 위해 상상의 여행을 하는것도 한 방법이다. 어디든 평소에도 여행 다닐때 보아 두었던 장소를 편집하여 자기 나름의 코스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서 멈추어 명상을 하는 것이다. 완전히 마음을 비우기란 쉽지가 않다. 이때 나는 특정종교에 얽매지 않기 때문에 성경중 시편의 한 구절이나, 불교의 반야심경의 한 구절을 암송하면서 ‘우주의 마음’에 내 희망을 투사시킨다.

공원의 인공미에 싫증이 나거나 운동량이 부족할 때는 자연미를 찾아서 산행을 한다. 이번 여름에도 주로 물이 좋은 곳을 찾아서 수락산, 도봉산, 멀리 강원도 치악산까지 가서 계곡물에 탁족을 하면서 명상을 익혔다.

나는 방송에 집착하는 오랜 직업병을 산책과 등산, 그리고 명상으로 고치려고 애쓰고 있다.



왜 거기에 살고 있습니까?

- LA 사우가 보낸 글

전 MBC방송문화연구원
김용현

남가주의 9월은 어느 때 보다 뜨거웠다. 뒤통에 찾아온 더위에도 LA북쪽 주택지대까지 엄습한 산 불 때문에 도시는 온통 매연과 분진과 뜨거운 열기로 뒤 덮히고 말았다. 같은 도시 안에서라도 조금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들이야 공기가 나쁘다는 배무는 불평이나 했겠지만 막상 산불로 재산의 피해를 봤거나 집을 비워 두고 대피해 있었던 사람으로서의 참으로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었을 것이다.

산불이 한창일 때 거기서 가까운 곳에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조카한테 전화를 했더니

산불도 물난리도 토네이도도

삶의 냄새가 났

그 곳으로 돌아오는 것을 막지 못해

막 집을 싸고 있다고 했다. 서둘러 집을 빠져 나오면서 대체 뭘 싸고 있었을까? -주택에 관한 서류, 보험 증서, 은행에서 크레딧 서류, 건강에 관한 서류, 자동차 서류, 여권, 운전 면허증, 결혼 앨범, 그리고 결혼 때 주고받은 패물들은 챙겼을지..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는 유독 관심이 많았던지 강아지는 어떻게 했는

옛 MBC라디오' 절망은 없다'에서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피어나고' 라고 했던가...일말의 위로 받아

지 물어 보란다.

그런 비상시를 예상한다면 산불만이 아니라 늘 지진의 걱정도 있는 남가주에서는 평소에도 비상시에 대비할 서류들을 정해 놓고 리스트와 함께 그것들을 비교적 손쉬운 곳에 둘 필요가 있었다. 싶었고 그 외에도 비상음식이야 응급약, 세면도구, 손전등, 라디오, 폭장갑, 우동화, 담요, 비상금, 가족사진 등을 넣어둔 가방 하나쯤은 항상 준비해 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이번에 대피소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간 아이들은 다른곳으로 이사 가지고 부모한테 떼를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울에서 걱정이 많았던 부모들도 왜 꼭 거기에서 살아야 하느냐며 상통성이 아닌 평지로 이사하라고 권했을 테지만 정착 당사자들은 쉽사리 울

림 생각을 못할 것이다. 산다는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뿐만이 아니다.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플로리다나 미시시피, 루이지아나에 사는 사람들도 토네이도를 피하는 그 피난행렬이 지겨워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텐데도 물이 빠지고 나면 거의 떠날 때와 같은 행렬로 제자리로 돌아가 물에 젖은 살림 도구를 말리며 고된 삶을 이어간다.

남들은 '왜 거기에 살고 있느냐?'고 묻는다. 삶의 터전이 거기 있다는 이유가 큰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꼭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산불이 자주 나는 지역은 경제적으로는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평지로 내려 갈수가 있다는 것을 안다.

그런데 왜 옮기지 못하는 것일까? 거기에는 삶의 냄새가 배어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헤어진 웃도 무심히 버리지 못하는 것은 거기에 묻어 있는 담과 추억을 간직하고 싶은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쉽사리 거처를 옮기지 못하고 머뭇거리다. 화실에서 화본으로, 또는 앞마당에서 뒷마당으로 모종한 꽃도 자리 잡자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정착 사람에게서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5,500마일이 나 터전을 옮겨와 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다. 그들이야 말로 대단한 용기와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번 산불에 피해가 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다시 또 씩씩하게 살아 갈 것이다. 그 옛날 우리 MBC 라디오 프로그램 '절망은 없다'에서는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피어나고' 지진에 무너진 땅에도 맑은 샘은 솟아 난다' 고 했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끝까지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계절이다.

필자 김용현은 프로듀서로 제작하던중 1980년 언론인 해직사태로 MBC를 떠났다가 1989년 복직했고 1992년 다시 사표를 쓰고 미국으로 건너가 지금은 가족과 함께 LA에서 살고 있다. 현지 언론에 시사평론을 쓰고 있는 한편 한민족평화연구소 소장과 6.15공동선언 미 서부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꾸준하게 통일운동을 펴 나가고 있다.



김우룡(66세)

- 현 한양대 석좌교수
- 한국외대 신학과 교수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 MBC 편성기획부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지난 7월 31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 9명과 감사 1명을 선임했다.

방문진 이사에는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 남찬순 고려대 초빙교수, 고진 전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장,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문재인 한국외대 법과대학 부교수, 정상모 전 MBC 통일방송연구소 전문위원, 차기환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변호사, 최홍재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한상형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등 9명이 선임됐다.

김영 부경대 평생교육원 명예원장은 감사를 맡기로 했다.

한편 이사장에는 김우룡 한양대 석좌교수가 선출됐다. 선임이사들은 2012년 8월 8일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된다.

방문진 이사장에 김우룡 교수... 이사 9명 선임. 2012년까지 3년간 활동

❖ 방문진 이사·감사 주요 약력 ❖



고진(64세)

- 전 방송영상산업진흥원 원장
- 목포MBC 대표이사 사장
- MBC보도본부장



차기환(46세)

- 현 우정합동법률사무소 공동대표 변호사
- 법무법인 두우 변호사
-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



문재완(48세)

- 현 한국외대 법과대학 부교수
- 단국대 법과대학 조교수
- 매일경제신문 기자



정상모(61세)

- 전 MBC통일방송연구소 전문위원
- 민주언론운동연합 부이사장
- 한겨레 민족국제부장, 편집부국장



김광동(46세)

- 현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 한국발전연구원 부회장
- 자유민주연구학회 회장



한상혁(48세)

- 현 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전문위원
- 방송위원회 기금관리위원회 위원



남찬순(60세)

- 현 고려대 초빙교수
- 동아일보 부장, 논설위원
- 관훈클럽 총무



최홍재(40세)

- 현 시대정신 이사
-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 데일리엔케이닷컴 논설위원



김영(67세)

- 현 부경대 평생교육원 명예원장
- 부산MBC 방송총괄이사, 대표이사

이 사람!

“내 삶을 아주 바꾼 이 길, 이제야 찾았다”

은평천사원 나눔센터 관장 이 창 식

“처음에는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었는데 어느새 폭 빠지게 됐죠.” 사회복지법인 은평천사원 나눔센터에서 장애 아동 돕기 뿐 아니라 해외아동지원 사업으로 나눔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이창식 관장. 현업 때 어린이프로 전담부서인 TV제작3부장을 다년간 역임했던 그는 자신에게 정해진 길을 이제야 찾은 것처럼 매일 아침 출근길이 설렌다고.

“해의 지원 사업에 눈을 뜨고 나눔센터를 만들면서도 사실 반신반의했죠. 백지 상태에서 모든 걸 새로 시작해야 했으니깐요. 더군다나 경험이 없는 상태라 더 불안했구요. 그런데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나눔센터는 지난 2007년 8월 우간다, 베트남 등 해외 빈곤·장애 아동을 본격적으로 돕기 위해 설립됐다.

이후 자선콘서트 개최와 홍보대사 활동으로 국내 장애아동 돕기에 적극 나섰고 북한 어린이 의료품·월제어 지원을 해왔다. 특히 우간다에는 직원을 1년간 파견해 교실 신축, 의료지원 활동을 펼쳤고 베트남과 평양을 오가며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 12월 4일에는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두 번째 자선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서부재활센터 운영위원으로 처음 은평천사원과 인연을 맺은 그는 관리직보다는 뭔가 창조적인 일을 하고 싶었다.

2년전 우간다, 베트남 등 해외빈곤·장애아동 도우려 설립

불우한 어린이의 희망 심어주고 스스로 만족하니 나는 ‘호프듀서, 해피듀서’

고민 끝에 해의 지원 사업에 눈을 돌렸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 해의 원조를 많이 받았는데 그걸 돌려주는 일에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31년 동안 방송이 천직인 줄만 알고 살았는데 회사를 나와 보니 제가 온실에 갇혀 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완전히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고 싶었는데 평소 지인인 은평천사원 조규환 원장과 의논 끝에 30년간의 후원자에서 본격적인 사회복지활동가로 변신하게 됐죠.”

방송을 떠나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었다는 그는 이 일 역시 방송과 닮았다는 걸 느꼈다고. “기획을 하고 예산을 짜고 후원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신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부 문화가 선진국처럼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원을 받는 게 방송처럼 쉽지는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지요”

나눔센터의 모토는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이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해피듀서’, ‘호프듀서’라고 부른다. 이 일을 하면서 스스로 행복할 수 있고 또 희망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제게는 ‘제 2의 인생’이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보다 ‘트랜스포머’라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만큼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뀐 느낌이지요. 나눔센터가 설립된 지 이제 갓 2년이 지난 초기 단계지만 독립 법인을 만들어 후원도 늘리고 월드비전 같은 세계적인 단체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박성희 기자 birdy23@naver.com



▶ 은평 천사원의 하루는 바쁘다. 천사원 일을 기획하고 예산짜고 후원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과 역시 많이 닮았다는 걸 느꼈다고.

부문별 모임

편성제작부문:

「인사동클럽」 라디오PD들의 만남. 5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으며 분기별로 모임을 갖고있다.

*회장: 김정환 / 총무: 우종범

「문미회」 미술부출신 회원들의 모임. 홀수달 3번째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모인다.

*회장: 김중수 / 총무: 이한수

보도부문:

「문화방송기자회(문기회)」 매달 3번째 금요일 저녁 6:30에 정기적으로 만난다. 장소는 강북 삼성병원뒤 다정 736-6363).

*회장: 이대우 / 총무: 오태돈

아나운서부문:

「MBC아나운서OB회」는 전제 회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모임을 갖고있다.

*회장: 차인태 / 총무: 고창근

「OB초록회」는 여자 아나운서들만의 모임으로 매달 첫 번째 목요일 낮 12:00에 만난다.

*회장: 임국희 / 총무: 반주원

기술부문:

「기술인동우회」 현재회원 150여명. 임원들은 분기별로 만나고 전체 회원은 12월 송년모임때 만난다.

*회장: 김중현 / 총무: 정태식

업무부문:

문화 경향 광고인 출신들이 「문경회」라는 이름으로 만난다. 임원들은 1년에 서너차례 만나고 전체모임은 신년 인사회를 겸해 1월에 한 번 있다.

*회장: 우윤근 / 총무: 이용구

관리부문:

「문미회」 비상계획부 출신 회원들의 모임. 분기별로 1년에 4번 모인다. *회장: 홍진표 / 총무: 방운식

「문우회」 차량부 출신 회원들의 모임. 분기별로 1년에 4번 만난다.

*회장: 서기석 / 총무: 이동일

「청초회」 시설국 출신 회원들을 주축으로 조직된 모임. 매달 첫 번째 목요일 저녁 6:30에 정기적으로 만난다.

*회장: 윤풍기 / 총무: 정병준

사우회 정기행사

회원단체대회

사우회 창립기념일인 5월 18일에 열린다.

장소는 양주 문화동산. 5월 18일이 주말일 경우 가장 가까운 날짜로 조정해서 열린다.

MBC 본사에서 점심식사로 갈비와 음료수 등을 제공하며 사우회는 푸짐한 상품을 준비한다.

그동안 평균 200여명 내외가 참석해 왔다. 신록이 우거진 상급한 야외 회식장에서의 한잔 술은 정기행사의 백미이다.

원로회원 산업시찰

봄(6월), 가을(10월), 두차례 원로 회원님들을 모시고 지방 나들이를 한다.

MBC에서 버스 1대를 지원 받는데 37인승이라 그 이상 회원들을 모시지는 못한다.

또한 돌아오는 길(당일차)을 고려해 멀리 떠날수가 없기 때문에 대전, 춘천, 원주방면으로 주로 나간다. 올 봄에는 공주 (공주 영상대학, 무령왕릉 시찰)를 다녀왔다.

7~80대 원로 사우님들이 가장 즐겨하시는 행사이다.

송년모임

매년12월초에 서울가든호텔에 열린다.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하는 자리라서 그런지 가장 많은 회원(5~600여명)이 참석한다.

지난해는 경제현황과 MBC의 광고수입 급감 등 본사 지원의 어려움 여건 때문에 부득이 송년모임을 갖지 못했다.

기타

사우회는 이밖에도 낚시대회 (봄-가을), 등산대회 (봄-가을), 바둑대회 (상-하반기), 골프대회 (상-하반기)도 주관하고 지원해 회원들의 건강증진과 심신 단련에 힘쓰고 있다.

사우회 홈페이지 주소

www.mbcsau.com

동호회

낚시클럽:

강태공의 후예를 자처하는 끈(?)들 9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낚시에 나서는 회원은 40여명. 사우회 주관으로 4월과 10월에 정기적으로 낚시대회를 하고 있으며 6월과 9월에는 밤낚시도 떠난다. 노서을, 안호선, 조동호, 김세중 회원등 열혈동지들은 열흘이 멀다하고 집을 나서며 밤낚시도 마다하지 않는다.

- 회장: 정중국 / 총무: 경진근

등산클럽:

삼복 더위에도, 동지설날에도 산에 올라야 직성이 풀리는 群衆 클럽. 가입한 회원은200여명에 이르고 있으나 행사때 참석하는 회원6~70여명선. 사우회 주관으로 4월과 10월에 친선등반 대회를 하며 매달 2번째 4번째 목요일에 15명 안팎의 극성회원이 정기적으로 산행에 나선다. 그동안 백두산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등 해외 원정도 여러차례 다녀왔다.

- 회장: 김진오 / 총무: 박한성

바둑클럽:

바둑판을 마주하고 앉으면 세상사 온갖 시름이 녹아 없어 진다는 신선놀음. 프로급 실력을 갖춘 권오룡, 정기정, 한박무, 권혁준, 이진섭회원을 비롯해서 11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사우회 주관으로 6월과 11월에 회장배 바둑대회를 하고 있으며 매달 첫번째 3번째 목요일에 사우회 사무실에서 정기적으로 대국을 갖고있다. 임성기, 김경식, 심재영 회원은 단골 트리오다.

- 회장: 신대근 / 총무: 김진홍

골프클럽:

골프의 대중화를 위한인지 130 여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사우회 주관으로 5월과 9월에 충주 중원CC에서 친선대회를 갖는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많으나 부강등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한 대회 참가회원을 40명선으로 제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 회장: 김용빈 / 총무: 백하현



Creative thought,
Valuable contents

창조적 사고, 가치있는 콘텐츠

Entertainment & Event Business

Program Marketing

시청자 주문판매 / 케이블·위성방송 판권판매 / 기획창작 DVD·비디오 판매

Production & Co-production

Drama / Documentaries / Variety shows / Movie(Animation) / HD Camera

MBC프로그램 구입

주문 : 전화 및 인터넷 Tel. 02)789-0123 / Fax. 02)789-0111 / www.mbcpro.co.kr

MBC 프로덕션



전 삼척MBC 사장 노 서 을



“꾸준한 운동과 사우회 활동이 건강 유지의 비결이죠.” MBC 사우회 최고령 회원이지만 아직도 소주 1병은 거뜬히 마신다는

별탈없이 나이드는 것도 고마운데 친구있으니 더 행복 하세요~

노서을(87) 전 삼척MBC 사장. 매일 아침 40분씩 동네 한 바퀴를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는 낚시와 등산도 꾸준히 할 만큼 건강하다.

“별 일이 없으면 오전에 지하철을 타고 사우회에 나가요. 현장에서 같이 활동하던 친구들을 만나 담소도 나누고 바둑도 두는 게 하루의 즐거움이죠. 별 탈 없이 나이드는 것도 고마운데 이렇게 함께 할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죠.”

사우회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사우회가 개최하는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한다. 봄·가을 정기 산행대회와 밤낚시 모임은 그에게 큰 즐거움 중 하나다.

특히 바둑은 수준급이라 사우회에서 개최한 바둑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적도 있다고. “낚시는 자연 속에서 삶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큰 매력이 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역동적인 활동보다는 낚시나 바둑처럼 정적이지만 꾸준히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맞더라고요.”

아흔 가까운 나이에도 소주를 즐겨 마실 만큼 건강하지만 그는 7년 전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험도 있다고.

“발전을 일찍 한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그것도 지금은 감사한 일이지요. 그 덕에 아직 건강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일본 동경 유학 후 원산 체신청에서 일하던 그는 가족을 남겨둔 채 홀로 피난길에 올랐다.

몇 십년간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지만 혹시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찾지도 못했다고.

“이산가족 상봉 때마다 찾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그러지를 못했어요. 이산의 아픔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모르죠.”

하계 돼 동거들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죠. 그래도 함께 일했던 당시를 생각하면 참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80년대 초 삼척MBC 사장 시절에는 주어진 일이 아니라 편가를 개척해야 하는 자리라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다고.

大富由天 小富由勤(대부유천 소부유근: ‘큰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렸고, 작은 부자가 되는 것은 부지런함에 달렸다’는 뜻). 명심보감에 나오는 이 말을 늘 마음속에 새겼다는 그는 성실함을 인생 최고의 미덕으로 삼는다.

혈혈단신 남하... 이산의 아픔이 평생 한으로 못박혀 내 인생 좌우명 ‘大富由天 小富由勤’ 늘 가슴에 새겼다

평생 가슴의 한으로 남아 있어요.”

마흔이 넘는 나이인 64년에 MBC 기술국(당시 기술과)에 입사한 그는 방송국 개국 시도를 진력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지금의 방송 환경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다른 일을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입사를

“큰 욕심 부리지 않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걸 나이 들수록 더 절실히 깨닫게 되더라고요. 젊은 시절 부지런하게 살았다고 자부하기 때문에 저는 현재에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박성희 기자 birdy23@naver.com

신규입회

- 8/27 李杰範 02-786-2290, 010-9050-0192, 영등포구 여의도동 43-4 롯데캐슬IVY 101-402
9/9 金銀輝 02-581-1247, 010-5712-1247, 서초구 서초동 1326-17 우성A 502-1101
9/28 李炳允 010-9105-1333,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580 현대A 203-1508
9/29 李塚元 02-2642-8610, 011-9944-7848, 양천구 신정1동 목동A 1027-204

경조사항

결혼

- 장 경(보도)-아들 9/4 장용택(관리)-장남 9/5
김동진(보도)-아들 9/12 안주희(Ann)-장남 9/27
황진옥(기술)3녀 10/10 강성호(편제)장녀 10/10
장창현(보도)-차녀 10/17 은희현(편제)-장남 10/17
김영면(편제)-장녀 10/23 김정명(보도)-장남 10/30
권해옥(감사)-아들 10/31

부음

- 박해선(대구)-모친상 8/5 김상기(보도)-부친상 8/24
이봉만(기술) 회원이 십이지장암으로 8월21일 별세했다.
향년 68세. 이회원은 1970년 MBC에 입사해 1998년 명예퇴직 할때까지 조명담당으로 근무했다.

- 이병석(관리)-모친상 9/4 이봉천(편제)-모친상 9/7
신원호(기술)장모상 9/19 유홍렬(편제)장모상 9/23
윤현균(대구)장모상 9/25 조경구(기술)장모상 9/30

- 오창영(관리)모친상 10/06

경사

- 팔순 | 조용중(전무) 10/23 이덕선(업무) 12/13

- 고희 | 김광복(보도) 10/3 육창용(편제) 10/7
인우삼(편제) 10/14 변용전(Ann) 10/15
최희태(기술) 10/18
전정익(관리) 11/14 김성호(편제) 11/16
이화옥(업무) 11/17 강 진(춘천) 11/23
이정일(미주) 11/27
마동익(관리) 12/21 박수효(기술) 12/22
유규현(기술) 12/28 신승훈(업무) 12/29
임재룡(기술) 12/30

- 회갑 | 주용국(기술) 10/3 문정철(기술) 10/18
윤건호(편제) 10/19 박병선(편제) 10/29
김성옥(편제) 11/19 이만규(관리) 11/19
권오형(업무) 11/20
장인순(편제) 12/2 정종국(관리) 12/7
김용웅(관리) 12/15 김상균(보도) 12/19
임준석(기술) 12/24

올 송년모임 12월 9일 개최

사우회 2009 송년모임이 12월 9일(수) 오후 6시에 서울 마포구든 호텔에서 열린다.

사우회는 회원들의 관심과 많은 참석을 바라면서 송년모임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동호회 소식

낚시클럽 : 가을철 낚시대회 10월 20일(화). 장소 김포-강화월대 (총무 정경근 011-286-6559)

등산클럽 : 가을철 등산대회 10월 22일(목). 구기동현대빌라에서 오전 10시 출발. 북한산 포구정사 (총무 박한성 010-3780-1950)

바둑클럽 : 하반기 회장배 바둑대회 11월 5일(목) 11월 3일(화)까지 참가신청. (총무 김진홍 011-247-0098)

연회비 내신분들

평생회비

- 김학윤(기술) 8/4 이길범(편제) 8/27
강성구(보도) 9/14 유조동(관리) 9/28
유행남(관리) 9/28 이병윤(편제) 9/28
이재원(관리) 9/29

연회비

- 권대택(09) 김성옥(09) 김순홍(09~10) 김윤영(09) 민경창(09) 박승선(08~09) 박태지(07~09) 연규철(09) 윤건일(05~09) 이영호(09) 이준호(08~09) 이현보(09) 이효일(08) 장두형(09~10) 정 진(10) 조춘희(09) 조태윤(04~08) 진용섭(02~08) 홍기룡(05~08)

- 강현이(01~17) 고 진(06~10) 김원기(09) 김형국(05~09) 박병선(05~09) 박오순(09~11) 박창순(09) 서정호(08~09) 오승룡(08) 오인환(06~09) 유희근(09~12) 윤남현(09) 윤종욱(09) 이명숙(09) 이병훈(09) 이봉만(07~08) 이종모(08~09) 이종수(09) 이효일(09) 정태웅(08~09) 하광연(07~09)

- 강유현(09~11) 강인숙(09) 김경일(07~09) 김병문(09) 김은휘(09) 김중복(09) 김창제(06~09) 문정철(09) 송세원(09) 오영환(05~09) 유조동(04~08) 유홍렬(04~08) 이병석(10) 장효상(06)

회원동정

이창식(편제) : 은평천사원 나눔센터관장. 8월 12일 개관 2주년 기념행사로 베트 남-우간다 현장봉사단 활동보고회 등을 은평천사원 윤한기념관에서 가졌다.

김동진(보도) : 전 강릉MBC사장. 9월 1일 언론중재위원회 서울2중재부 심임 중재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9월 12일에는 아들 지용 군을 결혼시켜 경사가 겹쳤다.

박선영(보도) :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대변인.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부군 민일영 판사가 9월16일 국회입법동의안이 가결돼 대법관으로 확정됐다.

강영숙(ANN) : 예지원원장. 예지원 창설 35주년을 맞아 9월 16일(수)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기념식을 가졌다.

김영일(보도) : 전 강릉MBC사장. 9월 17일 불교방송(BBS) 전무로 취임 했다.

한박무(보도) : 한국방송기자클럽사무총장-MBC사우회보편집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도-교양분과 특별위원으로 위촉돼 9월 22일 위촉장을 받았다.

박근숙(보도) : 사우회 명예회장. 9월 24일에 개봉된 장남 박진표 감독의 최신작 “내사랑 내결이”가 주석 흥행물임을 하고있어 싱글벙글. 박감독은 “그늘목소리” “너는 내운명” 등을 통해 총무회에서 흥행감독으로 불리고 있다.

전화/주소변경

I편제

김옥균 010-5243-8344
김중수 010-6394-9710

박병선 광진구 자양동 510-5 이튼타워

1차 A동 2301호

박원웅 010-5221-0539

이명기 02-555-8488~9

강남구역삼1동 648-9 (강남삼호복합)

이병훈 070-6812-4191

용산구서빙고동 신동아A 14-1102

진용수 010-4280-2851

지석원 010-5469-3400

최광민 010-5635-5969

최정숙 010-8285-8657

I보도

박재규 010-7409-3441

김포시 고천읍 풍곡리 69-1

한박무 010-9105-1412

I업무

문시용 010-4046-1941

남양주시 호평동 723 입광A 7-1003

I기술

강홍신 010-8632-6181

권윤성 강남구도곡1동 885-8역삼한신A 1-

606

김규수 010-3886-0056

박맹의 서초구양재동 6-36양재테크노

3차A 303호

이 열 강서구 화곡8동 490-183

이영근 010-3684-7049

IANNI

임택근 송파구가락동95동부트레빌 101-1303

차인태 010-3698-8588

I관리

김세일 010-3752-4349.

031-765-2914

김재수 010-5511-0299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회룡리 목가맨션

김희철 010-2569-0803

나일수 영등포구당산동3가 558-3 더파

크 1316호

문용수 강서구화곡6동우장산롯데캐슬

203-1103

민영기 010-3751-3686

이용재 광주시도척면상림리 162-13

이정오 010-7303-7869

임부영 010-2495-2246

고양시덕양구행신동650-38행신

빌라트201호

정준보 남양주시와부읍도곡리쌍용스윗

홈 101-1404

조은국 의정부시회원2동희명역풍림아이원

203-903

조재욱 구로구 오류1동 81-66

최창일 010-2269-8459

홍이표 동작구 사당1동 1015 3층-10호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2008
베스트이트상품
BEST HIT
서울경제

보험료 낮추라, 서비스 높이랴~ 이유가 고생이 많다! 이유다이렉트 연일 인기행진

싸니까!

31세 (부부, 30세 특약)
211,690원

26세 (1인, 26세 특약) **247,650원**

43세 (부부, 35세 특약) **256,080원**

1600cc 기준 보험료 (가정용 3년이상, 남/여, 일반도로 2인) 2008.5.28 순보험료 공시금

고급이니까!

- 20분 긴급출동 보증제 실시!
20분 초과시 20만원 상당 SK스피드메이트 정비쿠폰 제공
- 이유 멤버십 서비스!
SK스피드메이트 정비쿠폰 제공 (최대 20,000원 할인)
- 이유다이렉트 신한카드 결제시
3만원 할인 + 엔진오일 무료교환 + 방향제!
자세한 사항은 www.shinhancard.com 참조

차량 기액 150만원 (2001년식) 출퇴근 및 가정용, 대인배상2 무한, 대물배상 3,000만원, 자손 3,000만원, 차량등급 6등급(100%), 자체부담금 5만원, 무보험차상해 2억원, ABS장착, 오토차량, 교통법규위반 할인할증 기본(100%), 긴급출동 특약 미가입시 상기 조건과 다를 경우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09-0292호 (2009. 5. 25)

NAVER

이유다이렉트

1688-4760

기본 좋은 자동차보험

이유 다이렉트
www.eyou.co.kr

흥국금융가족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투신운용

흥국증권

고려저축은행

에가람저축은행